

최소주의가 통역전략에 미치는 영향

박 유 경
(호서대학교)

1. 서론

본 논문의 목적은 Chomsky(1995)의 최소주의 문법을 대학생 통역수업에서 가르친 후, 통역 오류 분석을 통하여 통역 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데 있다. 통역을 잘 하기 위한 전략은 크게 통역 기술과, 언어적 지식, 문화와 역사 등 실사회적 지식, 및 문맥에 따른 상황적 지식 등이 있다. 통역 전략 중 훌륭한 통역사가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 중 하나가 목표어에 대한 언어 지식이므로, 이중 언어 구사자는 제 2 외국어 학습자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훌륭한 통역사가 되기 위해서는 통역 기술과 함께 언어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의 많은 대학생들은 수 년동안 영어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작문이나 회화에 취약한 경우가 많이 있다. 그 원인을 살펴본 결과, 언어 사이에 일대일 대응관계가 있고, 단어는 소리와 의미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문법은 수동태 용법, 가정법, *It ... to* 또는 *It ... that* 용법, 의문문이나 부정문 만들기 등 별도로 존재하는 언어 지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들은 단어의 의미와 발음만 알

고, 제한된 문법 지식을 갖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많은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많다. 어휘 지식은 의미 뿐 아니라 통사론적 지식이 필요하므로, 통역사는 문장 형성의 규칙을 잘 알아야 한다.

Chomsky(1993, 1995)는 최소주의 문법에서 단어가 음성, 의미, 형식 자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는 어휘 항목의 형식자질인 선택자질 및 점검자질에 의해 단어가 결합된 결과라고 주장하였다. 최소주의 문법의 목적은 원어민이 가진 문법 능력의 실체를 정의하는 데 있고, 각 언어가 가진 고유의 형식자질이 언어 차이를 초래한다고 가정한다. 통역 전략은 출발어(source language)를 잘 이해하여 가장 적합한 목표어(target language)로 재생하는 것이 목표다. 그러므로 통역사에게 어휘 지식, 특히 목표어의 형식 자질에 대한 지식이 언어 습득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되어, 선문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통역 수업 시간에 최소주의 문법을 가르친 후, 통역 오류 분석을 통하여 그 효과를 살펴보았다.

2. 최소주의

최소주의 문법은 기존의 범주 중심의 문법이 아닌 자질 중심의 문법으로서, 언어 습득의 부담을 줄여주고 자연 언어 문법 학습 능력을 최대한 늘리기 위해 탄생되었다. Chomsky(1965)는 언어 능력을 인지체계와 수행체계로 구분하고, 이 중 인지체계를 다시 어휘부와 연산체계(Computational System)로 나누었다. 어휘부는 언어적 표현을 형성하는 기본 요소이고, 연산체계는 언어적 표현을 생성하는 작업이다. 인지체계는 소리, 의미, 구조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여 이를 수행체계로 보내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언어 능력의 핵심이 인지체계이므로 어학 연구는 인지체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Chomsky(1993)는 인간의 언어는 어휘부를 제외하고는 동일하고, 각 언어의 문법은 어휘부에 의해 결정되며 언어 차이는 어휘가 가진 고유 자질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하였다.

Chomsky는 모든 인간은 타고난 언어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언어 능력 또는 인지체계는 몇 차례의 변화(중간 단계)를 거쳐 특정 언어의 문법으로 고정된다고 가정하였다. 그는 언어 능력의 초기 상태를 보편 문법(Universal Grammar)이라고 부르고 이것은 모든 언어에 동일하다고 보았다. 특정 언어의 문법은 언

어자료의 노출을 통해 설정된 변수에 의해 결정된다. 예를 들어 영어에서는 명사, 동사, 전치사, 형용사 등 모든 핵(head)이 *research on cinema*, *love you*, *on the horizon*, *tired of mathematics* 에서와 같이 보충어(complement) 앞에 온다. 반면에 한국어에서는 모든 핵이 “영화에 대한 연구, 당신을 사랑해, 수평선에서, 수학에 질리다”와 같이 보충어 뒤에 온다. 이러한 단어의 순서에 관한 변수를 핵 변수(head parameter)라 부른다. 각 개인은 특정 언어의 언어적 경험에 기초해 변수 값을 설정하게 되는데 중간 단계에서 여러 차례의 실수를 거쳐 최종적으로 안정된 언어 능력을 갖추게 된다. 이러한 핵 변수뿐 아니라 타동사의 목적어를 선택하는 자질이라든가, 특정 전치사 뒤에 어떠한 명사가 온다고 하는 문법적 자질을 자연스럽게 익혀 문법에 맞는 문장을 만들게 되는데 이것을 자질 점검의 과정이라고 한다.

최소주의 문법에 따르면 문장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어휘항목이 어휘부에서 배변집합(Numeration)에 선택되며, 어휘항목의 선택자질에 따라 단어가 결합되고, 해석 불가능한 자질이 연산부에서 점검된 후 음성자질은 음운부로 보내지고 의미자질은 논리형태로 보내진다. 문장의 모든 해석 불가능한 자질이 삭제되어 해독가능 조건과 완전 해석원리의 최소출력 조건을 충족시키면, 그 문장은 문법에 맞는 문장이고, 그렇지 않으면 비문법적인 문장이 된다. 이것을 도표로 그리면 다음과 같다.

1.1. 최소주의 문법체계



어휘항목에는 어휘범주(명사, 형용사, 동사, 부사, 전치사)와 기능범주(관사와 같은 Determiners (D), 동사의 시제를 나타내는 Tense (T), 접속사 *if, that* 과 같은 Complementizers (C))가 있다. 어휘범주가 고유의 내용 의미를 가지고 있는 반면, 기능범주는 문법적 속성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모든 어휘항목은 각기 음성자질, 의미자질, 형식자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형식 자질에 의해 문장의 구성이 결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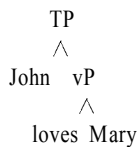
예를 들어 “*John loves Mary.*”와 같은 문장을 만들 경우, 순서 없이 배번집합에 ‘*loves, John, Mary*’와 같은 형태로 들어온다. 이들이 연산체계로 입력되면 동사 *loves*의 선택자질1)에 의해 먼저 *loves*와 *Mary*가 결합되고 T가 가진 EPP 자질2)에 의해 주어인 *John*이 결합된다. 선택자질과 EPP 자질 등은 어휘부에 고유하게 존재하는 자질인 반면에, 일부 자질은 문장과의 사이에 의해 결정된다. 예를 들어 3인칭 단수 현재의 동사에는 *-s*가 있어야 하는데, T의 점검자질이 주어와 동사 사이의 일치관계를 점검하여 문법에 맞는지를 판단한다. 만약에 이 문장에 동사 *loves* 대신 *love*가 들어 있으면 동사의 해석 불가능한 자질 때문에 비문법적인 문장이 된다.

어휘항목은 해석 가능한 자질과 해석 불가능한 자질들을 가지고 있는데, 최소주의에서는 모든 해석 불가능한 자질이 논리 형태에 도달하기 전에 점검된

1) 타동사 *love*는 바로 뒤에 목적어를 선택한다. 동사뿐만 아니라 명사, 형용사, 전치사 등도 고유의 선택자질을 가지고 있다. 아래의 예에서 굵은 글씨로 표시된 핵의 선택 자질에 따라 뒤에 나오는 요소들이 선택된다.

- (a) N=[+_PP] (예: **information** on the cinema)
- (b) A=[+_PP] (예: **proud** of my son)
- (c) P=[+_DP] (예: **on** the wall)
- (d) V=[+_DP (DP), CP] (예: **give** him a book, **suggest** that you should come)

2) EPP는 Extended Projection Principle의 준말로써, 문장의 구조에 상관없이 주어가 반드시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아래의 문장에서 *loves Mary*가 한번 더 위로 투사되어서 *John*과 결합하게 된다.



후 삭제되어야 완전 해석 원리를 준수한다고 본다. Radford(1997)는 해석 가능한 자질과 해석 불가능한 자질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2.2. 해석 가능한 자질과 해석 불가능한 자질

- 1) 어휘범주의 해석 가능한 자질: 범주 자질(N, V, A, Ad, P)과 명사의 일치자질(인칭, 성, 수)
- 2) 기능범주의 해석 가능한 자질: 범주 자질(C, T, D, v)과 시제 자질, *wh*-자질
- 3) 기능범주의 해석 불가능한 자질: 격자질, 동사의 일치자질, Q 자질³⁾

최소주의 문법에서는 해석 불가능한 자질의 점검이 중요하므로, 이 중 해석 불가능한 자질의 성격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명사의 격자질과 동사의 일치자질은 어휘부에서 고정되지 않고 있다가 배변집합에 선택될 때 문장 내의 주어-동사 관계 또는 목적어-동사 관계에 의해 결정된다. 이러한 해석 불가능한 자질들을 점검자질이라 부르며, 이들이 일치해야만 문법적인 문장이 완성되어 발음은 음성 형태, 의미 해석은 논리 형태로 보내진다. 배변집합과 문자화 사이의 연산체계는 단어가 직접 이동하며 병합하기 때문에 overt syntax라고 하고, 문자화 이후의 연산체계는 눈에 보이지 않고 점검만 하기 때문에 covert syntax라고 한다.

최소주의 문법을 통역 시간에 학생들에게 설명한 후, 단어를 외울 때 소리와 뜻만 아니라 반드시 어휘의 선택자질을 함께 익히게 하고, 수행 단계인 통역 실기 수업에서는 동사와 명사의 수 일치와 같은 점검자질에 유념할 것을 가르친 결과 다음과 같은 분석이 나왔다.

3) Q 자질은 의문문에서 아래와 같이 주어와 동사의 도치를 초래하나, 의미적 차이는 없다.

- (a) (CP Q (TP She is beautiful))?
- (b) (CP Q Is (TP she t beautiful))?

3. 최소주의의 통역 수업 적용

본 연구는 선문대학교 영어과에 재학중인 16명의 학생들에게 1998년 가을 학기부터 1999년 봄 학기까지 2학기 동안 순차통역 시간에 최소주의를 가르치고 통역 연습을 한 결과를 분석한 것이다. 그 중 8명은 1학기 더 동시통역을 수강하였는데 이 두 집단을 비교하여 오류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그들은 주당 3시간 동안 선택과목으로 통역 수업을 들었다. 통역 수업은 특별한 교재가 없으므로, 통역 수업의 긴장을 줄이고 문법학습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일상생활의 내용을 작문해오면 오류를 정정한 후 먼저 영어로 읽어주고 통역하게 한 후, 같은 내용을 다시 한국어로 통역하게 하였다⁴⁾. 같은 내용인데도 영한통역보다는 한영통역에서 오류가 자주 발견되었는데, 그들이 내용 파악은 하였으나 영어 단어의 형식자질인, 선택자질과 점검자질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하였으므로, 자주 그러한 자질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형식 자질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그들이 새로 습득한 문법 지식을 강화하기 위하여 그 다음 수업 시간에 오류가 포함된 학생들의 원래 작문을 복사하여 나누어 준 후, 그들 스스로 지난 시간의 수업을 되새기며 오류를 정정하게 하고 다시 한번 올바른 문장을 알려주었다.

기존의 문법교육이 먼저 문법을 설명한 후, 그 용례를 가르치기 때문에 제한된 수의 문법만 배우게 되고, 그 단원을 배우는 동안에는 정확한 문법을 구사하나 실제 상황에서의 활용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었다. 반면에, 통역 수업에서의 최소주의 문법 교육은 먼저 한영 통역 실기를 통해 문법을 구사해야 하는 실제 상황을 마련하여 학생들이 해당 문법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절실히 필요한 동기를 부여하는 장점이 있었다. 학생들이 오류를 무릅쓰고 통역을 하게 한 후, 각 단어가 가진 문법적 성격(예를 들어, 동사의 성격이 타동사인지 자동사인지 구별하는 능력, 또는 한국어에서 모두 “에”나 “에서”로 해석되는 전치사 “at, on, in” 등이 정확하게 쓰여야 하는 여러 가지 상황 등)을 가르침으로써 문

4) Corder(1975)는 수업의 내용이 학습자의 필요사항을 밀접하게 반영할 때 최선의 결과가 나온다고 하였다. VanPatten(1990)은 학습자가 문법을 익히려면 문법 형태에 주의를 기울여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고, 이를 위해 내용 처리가 자동으로 이루어질 만큼 쉬워야 한다고 하였다.

법 지식을 오래 기억하게 하고, 더불어 다른 단어들을 외울 때에도 발음과 뜻 뿐 아니라, 그 단어 자체가 가진 문법적 성격인 형식자질에 관심을 갖게 함으로써 원어민이 가진 것과 같은 어휘 지식을 갖게 하는 효과가 있었다.

통역수업에서 최소주의 문법과 관련하여 다음의 네 가지 종류의 오류가 발견되었다.

3.1. 오류의 종류

최소주의 문법에서 학습자 오류는 크게 배변집합의 오류, 선택자질의 오류, 해석 가능한 고유 자질의 오류, 해석 불가능한 자질의 오류의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3.1.1. 배변집합의 오류

Chomsky의 최소주의 문법은 원어민의 능력을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배변집합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지만, 외국어 학습자에게는 어떤 단어를 선택해야 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것 자체도 연산의 일부로 보아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통역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 (3) (a)*I was *amazing* by the scene. (오용)
 (b)*We took dinner there. (잘못된 연결)
 (c)*She was get a job. (추가)

(3a)에서는 형용사 *amazing*을 *amazed* 형태로 써야 하며, (3b)에서는 저녁을 먹다라는 동사 *have*를 선택해야 했고, (3c)의 경우 일부 학습자들이 동사 앞에 습관적으로 *be* 동사를 추가하는 체계적 오류를 보여주었다.

3.1.2. 선택자질의 오류

어휘범주의 선택자질은 의미역 자질(thematic features)과 관련이 있는 반면에, 기능범주의 선택자질은 단어의 순서와 관련이 있다. 먼저 의미역 자질에 관한 오류를 살펴보자.

- (4) (a)*It looked beautifully to me.
 (b)*My mother suggested me to study harder.
 (c)*I am afraid studying architectural engineering.
 (d)*Professor Lee is popular among students.
 (e)*We went to the same direction.

(4a)에서 동사 *look*는 연결 동사이기 때문에 부사가 아닌 형용사 *beautiful*을 써야 하고, (4b)에서 동사 *suggest*는 *that*절로 연결해야 하므로 “*My mother suggested that I (should) study harder.*”로 고쳐 써야 한다. (4c)에서는 형용사 *afraid* 뒤에 *of*가 생략되었고, (4d)에서는 전치사 *among* 대신 *with*를 사용해야 하고, (4e)에서는 전치사 *to*가 아닌 *in*을 사용해야 한다. 이들은 모두 영어의 동사나 형용사, 전치사 등의 의미와 관련된 선택자질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나 (4d)의 “학생들 사이에 인기가 있다.”는 문장에서 “사이에”를 바로 *among*으로 표현하였듯이, 많은 오류가 모국어의 선택자질과 혼동하여 발생함을 알 수 있다. 다음은 기능범주의 선택자질과 관련된 오류를 살펴보자.

- (5) (a)*I little drink water.
 → (TP I (vP drink a little water)).
 (b)*I late rising.
 → (TP I (vP get up late)).
 (c)*There were as well as ancient buildings, many trees and flowers.
 → (TP There (vP were (DP many trees and flowers (PP as well as ancient buildings)))).
 (d)*They all didn't go to the concert.
 → (TP They didn't (vP all go to the concert)).

한국어는 head-last language이므로 어순상 목적어가 동사 앞에 오나, 영어는 head-first language이므로 핵인 동사가 보충어 앞에 온다. (5a, b)의 예문에 서는 TP가 vP(동사구)를 선택해야 하고, (5c)의 예문에서는 *there* 구문의 vP 다음에 DP가 먼저 와야 한다. (5d)에서 양화사 *all*은 *they*와 떨어져 vP의 지정어

자리에 와야 된다. 위의 예문들은 T와 v의 선택자질과 관련된 오류라 할 수 있다.

3.1.3. 해석 가능한 고유 자질의 오류

고유자질이란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등의 범주자질이나 명사의 일치자질 (예: 단, 복수)과 같이 어휘에 본래 존재하는 자질이다. 시제 또한 기능범주 T의 고유자질에 속한다.

- (6) (a)*After having a drink, I returned to home.
- (b)*We got a lot of advices.
- (c)*This is why we keep the our relationship for the last three years.

(6a)에서는 *home*의 품사가 부사인데 명사로 착각하였고, (6b)에서는 *advice*는 본래 셀 수 없는 명사인데 *-s*가 붙었고, (6c)에서는 일정 기간 지속되었기 때문에 시제가 현재완료형이어야 하므로, *we keep the our relationship*을 *we have kept our relationship*으로 바꾸어야 한다.

3.1.4. 해석 불가능한 자질의 오류

해석 불가능한 자질의 오류는 주로 명사의 격자질 및 동사의 일치자질과 관련되어 있다.

- (7) (a)*There were many children who has handicaps.
- (b)*Everyone have hopes.
- (c)*Mrs. Brown was ugly, but he did not care.

(7a)에서는 *many children*의 수 자질과 관계절 동사의 수 자질이 일치하지 않았고, (7b)에서는 *everyone*의 수 자질이 단수이므로 “*Everyone has hopes.*”로 바꾸어야 하고, (7c)에서는 *Mrs. Brown*이 여자이므로 *he*를 *she*로 바꾸어야 한다.

3.2. 시험결과 분석

매 학기 수업이 끝난 뒤 학생들에게 통역 실기 시험을 치르게 한 후 최소주의 문법의 자질 교육을 받은 후 통역 오류가 얼마나 줄었는지 파악하기 위해 시험 결과를 비교하였다. [표 1]에 총 16명의 연구 집단 중 첫 번째 그룹인, 2학기동안 순차 통역을 수강한 8명의 학생들이 통역 시험을 본 결과가 나와 있다. 통역할 내용을 서너 문장씩 읽어준 후 학생들이 통역하게 하고, 잠시 쉬었다가 다시 통역할 내용을 읽어주는 방식으로 다섯 번 정도 하여, 그들의 한영 통역 내용을 녹음기에 녹음하여 오류의 종류별로 분석하였다. 통역 오류에는 인지 능력인 해석의 오류와 수행 오류의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명확히 구별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본 실험에서는 수행 오류에 국한하여 분석하였다.

[표 1] 통역 오류 분석(98년 2학기 - 99년 1학기)

오류유형	98/2			99/1			A-B
	점검항목	오 류	오류율(A)	점검항목	오 류	오류율(B)	
배번집합	248	80.5	32.4	184	42.5	23	9.4
선택자질	96	26.5	27.6	152	18	11.8	15.8
해석가능	152	22.5	14.8	144	23	15.9	-1.1
해석불능	168	49	26.8	144	12	8.3	18.5
합 계	664	178.5	26.9	624	95.5	15.3	11.6

학생들의 모국어가 같고, 연령과 사회적 배경, 학습 경험 등이 비슷했으므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비슷한 오류를 범하였으나, 형식자질에 대한 수업을 받은 후 많은 오류 수가 줄어들었다. 특히 선택자질 오류와 해석 불가능한 자질의 오류가 크게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수업 시간에 동사, 형용사, 전치사, 명사 등이 선택하는 요소들을 강조하여 비문법적인 문장이 크게 줄었고, 3인칭 단수 현재 동사에 -s 붙이기 등은 잦은 실기 연습을 통해 자연스럽게 익힌 것 같다. 그러나 해석 가능한 자질의 오류는 99년 1학기에 약간 늘었는데, 98년 2학기 시험에서는 단순한 현재와 미래 시제만 통역하게 하였으나, 99년 1학기에는 과거, 현재, 미래 시제를 혼용하였기 때문에 오류가 늘어난 것 같다. 선택자질 오

류와 해석불가능한 자질의 오류가 두 자리수로 줄었다는 사실은 쉬운 교재를 선택하여 통역 수업에서 자질 학습을 시키는 것이 학습자의 언어 지식을 효과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법임을 시사한다.

본 실험에서는 순차 통역만 2학기 동안 들었던 8명의 그룹과, 순차 통역을 2학기 동안 수강한 후 다시 1학기 동안 동시 통역을 수강한 8명의 그룹으로 나누어서 그 시험 결과를 살펴보았다. [표 2]는 3학기 동안 통역 수업을 들은 학생들의 통역 실기 시험 결과를 보여준다.

[표 2] 통역 오류 분석(98년 2학기-99년 2학기)

오류유형	98/2(순차)			99/1(순차)			99/2(동시)			A-B	B-C
	점검 항목	오류	오류율 (A)	점검 항목	오류	오류율 (B)	점검 항목	오류	오류율 (C)		
배번집합	248	86	34.7	184	44	23.9	224	37	16.5	10.8	7.4
선택자질	96	23	24.0	152	23	15.1	120	12	10.0	8.9	5.1
해석가능	152	25	16.4	144	24	16.7	168	23	13.7	-0.3	3.0
해석불능	168	53	31.5	144	7	4.9	192	8	4.2	26.6	0.7
합 계	744	215	28.9	696	116	16.7	808	116	14.4	12.2	2.3

두 번째 그룹은 두 번째 학기인 99년 1학기 시험에서, 해석 가능한 자질의 오류가 [표 1]에서와 같이 시제의 혼용으로 인해 약간 늘어났지만, 동시 통역을 들은 다음 학기 시험에서는 다른 종류의 오류들과 마찬가지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두 번째 학기와 세 번째 학기 사이의 오류를 차이는 첫 번째 학기와 두 번째 학기 사이의 오류율 차이와 비교하여 작은 편인데, 그 이유는 교수 방법과 통역 시험 절차 때문인 것 같다. 동시 통역 수업은 실습 위주이기 때문에 자질 학습에 할애한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또한 순차 통역 실기 시험에서는 통역할 내용을 불러준 후 잠시 시간을 주어 학생들이 생각할 시간의 여유가 있었던 반면에, 동시 통역 실기 시험에서는 학생들이 문장을 불러주는 동안에 즉각적으로 통역을 해야 했다. 필기 시험과 달리, 통역 실기 시험은 문법 지식을 즉각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시간제약이 있기 때문에 오류의 수가 더 늘어날 수 있다. 해석 불가능한 자질의 오류율이 2학과 3학기 사이에 가장 차이가 적었던 것을 볼 때 아마도 이 자질이 시간 제한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 같다. 즉, 3

인칭 단수 현재시제의 일치 자질과 같은 해석 불가능한 자질의 오류는 인지 능력의 오류이기보다는 수행 능력의 오류인 것 같다.

4. 결론

통역사의 목표어에 대한 언어적 지식을 늘리는 방안의 하나로 통역수업에 최소주의 문법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여 그 영향을 살펴본 결과, 최소주의에 기초한 형식자질 학습 후에 전반적인 통역 오류 수가 크게 줄어들었고, 특히 선택 자질과 해석 불가능한 자질의 오류가 상당히 줄어들었음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두 학기 동안 순차통역을 들은 후 한 학기 더 동시통역을 들은 학생들의 시험 결과를 두 번째 학기 결과와 세 번째 학기 결과를 비교했을 때, 순차통역만 들은 학생들의 첫 학기 시험 결과와 두 번째 학기 시험 결과의 차이만큼 크지 않았는데, 이는 동시통역 수업 시간은 통역 실기가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질 교육을 강화할 시간이 적었고, 시험 역시 생각할 시간의 여유 없이 문법 지식을 즉각적으로 활용해야 했기 때문에, 인지 오류보다는 수행 오류가 더해져서 오류의 수가 늘어났기 때문인 것 같다.

오류 분석에서 얻어진 정보, 특히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오류는 적절한 학습 방안 및 교재를 구성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형식 자질에 대한 교육을 받기 전에 학생들은 대충 추측하여 문장을 만들기 때문에 주요 단어들은 들어가 있지만 문법이 맞지 않는 엉성한 문장을 만들었다. 그 중 많은 오류들이 직역이나 모국어의 간섭으로 인해 발생하였다. 목적어인 영어 어휘의 형식 자질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소화하기 전까지 그들은 중간 단계에서도 여러 가지 가정들을 실험하며 많은 오류를 범했다. 그러나 학생들은 반복적인 형식자질 교육으로 올바른 언어 지식을 갖추게 되고, 통역 연습을 통해 그것을 빨리 응용하는 훈련을 받게 되어, 이론과 실제적 접근을 통해 목표어의 문법 지식을 빨리 습득하게 되었다.

언어교육을 성공적으로 하려면 학생들의 연령과 강의 목적에 적합한 여러 가지 효율적인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 Corder(1975)는 강의 내용이 학습자의 필요성을 가장 밀접하게 반영할 때 최선의 결과를 얻는다고 말하였다. 학습자는

일정한 양의 정보에만 주의 집중할 수 있으므로, 통역 수업의 교재는 문법 형태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내용이 쉬운 학생들의 일상생활에 대한 영어 작문을 사용하였다. 작문 내용이 또래 집단의 공동의 관심사를 반영하고 그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이야기하므로 수업 시간을 흥미롭게 진행할 수 있었다. 또한 영한 통역과 한영 통역의 내용을 같게 함으로써 통역 시간의 긴장을 줄여주고, 각 언어의 어휘가 가진 문법적인 형식 자질의 중요성을 효율적으로 강조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통역 수업을 듣는 학생이나 통역 원리를 이해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제 2 외국어로서 영어를 배우는 사람들은 먼저 어휘의 형식자질을 중시하는 최소주의 문법을 이해하고, 쉬운 교재를 이용한 통역 연습을 통해 형식자질의 중요성을 깨닫고, 단어를 외울 때 발음 및 의미와 함께 어휘가 가진 형식자질을 익히는 것이 원어민에 가까운 올바른 언어지식을 배양하고, 목표어에 가장 알맞은 통역을 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참고문헌

- Allen J. P. B and Corder S. Pit. *Language and Language Learning. Techniques in Applied Linguistics*. Oxford UP, 1974.
- Choi. J. W. *Introduction to Interpretation*. Seoul: Shinronsa, 1988.
- Chomsky, N. *Aspects of the Theory of Syntax*. Cambridge, Mass.: MIT Press, 1965.
- _____. *Knowledge of Language: Its Nature, Origin, and Use*, New York: Praeger, 1986.
- _____. A Minimalist Program for Linguistic Theory. in the *View from Building 20: Essays in Linguistics in Honor of Sylvain Bromberger*. In K. Hale and J. Keyser (eds.). Cambridge, Mass.: MIT Press, 1993.
- _____. *The Minimalist Program*. Cambridge, Mass.: MIT Press, 1995.

- _____. *Minimalist Inquiries: the Framework*, Mass.: MIT Press, 1998.
- Corder, S. P. *The Study of Learners' Language: Error Analysis, Introducing Applied Linguistics*. Harmondsworth: Penguin Books, 1975.
- _____. The Significance of Learner's Errors. *IRAL* 4, 1987.
- Ellis, R. *Understanding Second Language Acquisition*, Oxford UP, 1985.
- Ogden, C. K. & Richards, I. A. *The Meaning of Meaning*. London: Routledge & Kenan Paul, 1923.
- Radford, A. *Syntactic Theory and the Structure of English: A Minimalist Approach*. Cambridge UP, 1997.
- VanPatten, B. Attending to Content and Form in the Input: An Experiment in Consciousness. *Studie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12. 287-301, 1990.
- Yom, H. I. Problems of Simultaneous interpretation from Korean into English, *The Journal of Studies in Language* 14-2, 83-100, The Modern Linguistic Society of Korea, 1998.

K C I

[Abstract]

The Impact of the Minimalist Program on Interpretation Strategies

Park, Yukyoung

(Hoseo University)

The central aim of this paper is to see the impact of the MP (Minimalist Program) on students' linguistic competence and interpretive ability by analyzing their interpretation errors, after feature instruction in interpretation courses. Interpreters must express the incoming messages into the form that is most appropriate to the target language. Therefore, those aspiring to be good interpreters must acquire linguistic proficiency in the target language as well as interpretation skills. However, many Korean university students have the wrong notion that language is a one-to-one correspondence and that a lexical item is composed only of meaning and pronunciation, with the grammar component to be learned independently. This notion inevitably leads to a great number of interpretation errors. Chomsky (1993, 1995) holds that a lexical item is composed of phonetic, semantic, and formal features and that phrases are formed by combining words based on the formal (i.e. selectional and checking) features of lexical items. Under the assumption that formal feature instruction may play a crucial role in enhancing interpreters' linguistic competence, this paper shows the result of a pilot study that applied the MP to interpretation courses. After taking feature instruction for two or three semesters, some university students could decrease their interpretation errors considerably. Therefore, it is assumed that people who are interested in second language learning or interpretation need to study the MP in order to comprehend and acquire native speakers' intuitive knowledge of language.